

부부간 성적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연 규 율 · 이 근 후

= Abstract =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to the Sexual Conflict of Marital Relation

Kyu-Wol Yun, Kun-Hoo Rhee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Author has been researched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latent sexual conflict of marital relation by way of social field survey through questionnaire method from June 20th, 1984 to Aug. 10th, 1984.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

In case of latent sexual conflict of marital relation,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are age, siviling order, survival of parents, preference of parents, experience of sexual education at the age of puberty, experience of masturbation at the age of puberty, style of marriage, period of acquaintance before marriage, premarital sexual experience, and occupation.

The most important factors among the said factors are the experience and the attitude before the age of puberty.

서 론

갈등이란 반대와 적개심에 의해 규정되는 두 사람의 상호순응으로, 둘 또는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힘이 동일한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한다.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용납이 안되는 욕구, 충동, 소원, 외적 혹은 내적인 요구에 의해 야기되는 정신적 투쟁이다.

본능이 자아, 자아이상, 초자아 그리고 현실에 반대하여 결과적으로 억압, 상징화등의 형태로 갈등이 초래된다. 이런 본능의 요구와 그것에 대항해 생기는 내적인 저항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에 의해 궁극적으로는 정신장애가 발생한다. 정신적 갈등은 실제로

위기를 유발시키는 갈등으로 의식과 무의식사이의 투쟁에서 생기는 실제적 갈등, 어린시기 억압된 무의식속에 남아 있던 근원갈등, 정신내부적 투쟁으로 신경증의 근원이 되는 근본갈등, 정신분석적 치료도중에 나타나는 중심갈등, 내적갈등등이 있다¹⁾.

Freud는 리비도란 단어를 사용하여 이 리비도적 유형을 정신적요인 사이의 갈등, 양가적경향하에서 일어나는 갈등, 성적인 그리고 공격적 본능사이의 갈등으로 나누고²⁾ 좌절과 내적갈등이 신경증의 주요인이라 한 바 있다³⁾. 특히 그는 「토텐과 타부」⁴⁾에서 한 개인의 정신발달의 원동력이 되는 심리현상으로 에디프스(Oedipus)갈등을 지적한 바 있고 정신적 성적 본능의 원인이 어린시기의 성적활동과 연관된 어떤 고통스런 인상에서 성적인 복합의 역

압으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⁵⁾. 이에 반해 Masters와 Johnson⁶⁾은 성적문제가 항상 깊게 있는 무의식적 신경증적 갈등에 의해서만 기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주 일어나는 성적실패의 단순한 두려움 같은 피상적인 불안의 산물로도 온다고 하였다.

저자는 결혼한 내담자들의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증상의 역동성 추구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갈등형성의 주 요인 중 특히 성생활에서 오는 부조화가 가장 영향력이 있음을 보아왔다. 따라서 이런 성생활의 잠재적 갈등⁷⁾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추적분석함으로써 그 결과가 환자를 정신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는 여러 결과와 그 경향이 일치할 것으로 기대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1984년 6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증상류층이 많이 거주한다고 생각되는 10개지역(8구에서 10동 선정)을 집락표집하여 각 동에 거주하는 부부중 200쌍을 무작위 표집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2) 조사방법 및 분석

조사방법은 질문지법을 사용했으며 총 2,000쌍의 질문지중 응답해 온 705쌍의 질문지(35.3% 회수율) 중 응답이 불성실한 52쌍을 제외한 653쌍을 분석대

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사회과학 통계자료집)에 의거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 결과

성생활의 잠재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변량분석을 위해 본 연구 대상자를 다음 3집단으로 나누었다.

첫째, 부부간에 일치된 만족도, 태도, 기대를 가진 집단, 둘째, 부인이 남편에 비해 불만족도가 높거나 부정적 태도, 혹은 기대가 강하게 나타나는 집단, 셋째, 남편이 부인에 비해 불만족도가 높거나 부정적 태도, 혹은 기대가 강하게 나타나는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변량분석을 실시했다. 독립변수로는 부부각자의 개인적 배경, 사춘기의 성격형, 배우자 선택기간중의 성격형을 고려하였다.

1. 결혼생활 만족도

결혼생활 만족도에 나타나는, 잠재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부인, 남편 모두 연령, 형제서열, 사춘기의 성교육 경험, 사춘기의 자위행위 경험, 혼전순결여부로부터 나왔고 부인은 결혼형태, 결혼전 교제기간, 배우자의 혼전순결에 대한 믿음이, 남편은 부모님 생존여부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표 1).

표 1. 결혼생활 만족도(ANOVA)

| | 변 수 | S.S | df | M.S | F | P |
|----|------------------|--------|----|--------|--------|-------|
| 부인 | 연령 | 38.859 | 4 | 9.714 | 5.720 | 0.000 |
| | 형제서열 | 57.895 | 2 | 28.948 | 17.176 | 0.000 |
| | 사춘기의 성교육 경험 | 16.511 | 4 | 4.128 | 2.341 | 0.054 |
| | 사춘기의 자위행위 경험 | 24.091 | 5 | 4.818 | 2.803 | 0.016 |
| | 결혼형태 | 19.602 | 6 | 4.901 | 2.851 | 0.023 |
| | 결혼전 교제기간 | 26.566 | 6 | 4.428 | 2.503 | 0.021 |
| | 혼전순결여부 | 21.674 | 3 | 7.225 | 4.337 | 0.005 |
| | 배우자의 혼전순결에 대한 믿음 | 74.162 | 5 | 14.832 | 8.903 | 0.000 |
| 남편 | 연령 | 32.293 | 5 | 6.459 | 3.875 | 0.002 |
| | 형제서열 | 21.329 | 3 | 7.110 | 4.036 | 0.007 |
| | 부모님 생존 | 35.776 | 4 | 8.944 | 5.139 | 0.000 |
| | 사춘기의 성교육 경험 | 26.305 | 4 | 6.576 | 3.763 | 0.005 |
| | 사춘기의 자위행위 경험 | 45.400 | 4 | 11.350 | 6.574 | 0.000 |
| | 혼전순결여부 | 16.117 | 3 | 5.372 | 3.037 | 0.029 |

2.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성생활의 태도에 대한 잠재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부인 남편 모두 교육정도, 형제서열, 사춘기의 성교육 경험이고 부인은 배우자와의 혼전관계, 배우자의 혼전 순결에 대한 믿음이, 남편은 성에 대한 태도, 사춘기 자위행위 경험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왔다(표 2).

3. 결혼전 성생활에 대한 기대

결혼전 성생활에 대한 기대와 관련해서는 부인 남편 모두 교육정도, 형제서열, 사춘기의 성교육 경험, 사춘기의 자위행위 경험이고 부인은 배우자의 혼전 순결에 대한 믿음이, 남편은 직업, 부모선호도,

성에 대한 태도가 자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왔다(표 3).

성생활의 잠재적 갈등에 영향을 미친 요인별 변량분석의 결과 유의미하다고 밝혀진 변수들이 실제로 부부간의 태도차이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다 자세히 추적하였다.

1. 결혼생활 만족도

가. 부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부간의 잠재적 갈등의 소지가 커지며 만딸인 경우 갈등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춘기 성교육 경험은 대체로 부부간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부인의 성교육 경험이 없을 때는 남편의 불만족도가 높았다.

표 2.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ANOVA)

| | 변 수 | S.S | df | M.S | F | P |
|----|-----------------|--------|----|--------|--------|-------|
| 부인 | 교육정도 | 35.209 | 6 | 5.868 | 4.894 | 0.000 |
| | 형제서열 | 32.611 | 2 | 16.305 | 13.085 | 0.000 |
| | 사춘기의 성교육 경험 | 22.123 | 4 | 5.531 | 4.342 | 0.002 |
| | 배우자와의 혼전관계 | 16.275 | 6 | 2.713 | 2.132 | 0.048 |
| | 배우자의 혼전순결에대한 믿음 | 22.709 | 5 | 4.542 | 3.626 | 0.003 |
| 남편 | 교육정도 | 33.854 | 6 | 5.642 | 4.749 | 0.000 |
| | 형제서열 | 15.616 | 3 | 5.205 | 4.419 | 0.006 |
| | 사춘기의 성교육 경험 | 31.750 | 4 | 7.938 | 6.576 | 0.000 |
| | 성에 대한 태도 | 18.260 | 4 | 4.565 | 3.782 | 0.005 |
| | 사춘기의 자위행위 경험 | 47.435 | 4 | 11.859 | 9.903 | 0.000 |

표 3. 결혼전 성생활에 대한 기대(ANOVA)

| | 변 수 | S.S | df | M.S | F | P |
|----|-----------------|--------|----|--------|--------|-------|
| 부인 | 교육정도 | 37.584 | 5 | 7.517 | 5.368 | 0.000 |
| | 형제서열 | 36.693 | 2 | 18.346 | 12.970 | 0.000 |
| | 사춘기의 성교육 경험 | 20.297 | 2 | 10.148 | 7.118 | 0.001 |
| | 사춘기 자위행위 경험 | 28.275 | 2 | 14.138 | 10.006 | 0.000 |
| | 배우자의 혼전순결에대한 믿음 | 23.105 | 2 | 11.552 | 8.150 | 0.000 |
| 남편 | 교육정도 | 38.039 | 5 | 7.608 | 5.597 | 0.000 |
| | 직업 | 94.521 | 11 | 8.593 | 3.520 | 0.000 |
| | 형제서열 | 15.690 | 2 | 7.845 | 5.447 | 0.005 |
| | 부모선호도 | 22.581 | 3 | 7.527 | 5.259 | 0.001 |
| | 사춘기 성교육 경험 | 29.168 | 2 | 14.854 | 10.544 | 0.000 |
| | 성에 대한 태도 | 11.723 | 3 | 3.908 | 2.825 | 0.038 |
| | 사춘기 자위행위 경험 | 31.565 | 2 | 15.783 | 11.450 | 0.000 |

한편 자위행위 경험은 부부간 결혼생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험이 있을 때 갈등의 비율이 높았다.

결혼전 교제기간은 길수록 부부간에 동일한 만족도를 보이며 짧을수록 잠재적 갈등의 소지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6개월~1년미만인 경우가 1개월~6개월 미만의 경우보다 잠재적 갈등의 소지가 크게 나타난 것이 특이했다,

자신의 혼전 순결여부에서는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을 때 특히 남편쪽에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자신의 혼전순결에 대해 비밀을 고집할 때 부부간의 잠재적 갈등의 소지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혼전순결을 지켰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부부간의 태도에 있어 일치도가 높았으나 부인이 남편에 대해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 경우는 특히 남편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표 4. 독립변수별 결혼생활 만족도(부인)

| 독립 변수 | 태도 (%) | 부부간에 동일 부인이 남편보 남편이 부인보 | | | N | P |
|-----------|---------------|-------------------------|---------------|---------------|-----|--------------|
| | | 한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 | 다 불만족도가 높은 집단 | 다 불만족도가 높은 집단 | | |
| 연령 | 만 22세이하 | 66.7 | | 33.3 | 3 | |
| | 만 23~30세이하 | 66.5 | 9.7 | 23.8 | 185 | $X^2=39.31$ |
| | 만 31~45세이하 | 51.4 | 11.4 | 37.3 | 255 | df=8 |
| | 만 46~60세이하 | 43.2 | 13.6 | 43.2 | 81 | $P=0.0001$ |
| | 만 60세이상 | 33.3 | | 66.7 | 3 | |
| 형제서열 | 외팔이다 | 72.7 | 7.3 | 20.0 | 55 | $X^2=99.21$ |
| | 만팔이다 | 51.4 | 11.7 | 36.9 | 179 | df=4 |
| | 둘다 아니다 | 54.6 | 11.3 | 34.1 | 293 | $P=0.0000$ |
| 성교육 경험 | 성교육을 받았다 | 59.2 | 11.7 | 29.1 | 196 | $X^2=58.56$ |
| | 성교육을 받지 않았다 | 53.1 | 10.50 | 36.4 | 324 | df=4 |
| | 말할 수 없다 | 50.0 | 16.7 | 33.3 | 6 | $P=0.0000$ |
| 자위행위 경험 | 자위행위를 했다 | 49.2 | 12.8 | 38.0 | 179 | $X^2=137.12$ |
| |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 | 59.3 | 10.0 | 30.7 | 339 | df=4 |
| | 말할 수 없다 | 28.6 | | 71.4 | 7 | $P=0.0000$ |
| 결혼형태 | 중매결혼 | 51.8 | 9.6 | 38.6 | 166 | $X^2=9.88$ |
| | 중매반 연애반 | 54.1 | 12.0 | 33.8 | 133 | df=4 |
| | 연애결혼 | 58.6 | 11.5 | 30.0 | 227 | $P=0.1291$ |
| 결혼전 교제기간 | 1개월미만 | 48.7 | 15.4 | 35.9 | 39 | |
| | 1개월~6개월미만 | 51.8 | 9.2 | 39.0 | 141 | $X^2=52.15$ |
| | 6개월~1년미만 | 49.0 | 12.5 | 38.5 | 104 | df=10 |
| | 1년~2년미만 | 55.1 | 11.2 | 33.7 | 89 | $P=0.0000$ |
| | 2년~5년미만 | 62.5 | 11.4 | 26.1 | 88 | |
| | 5년 이상 | 68.9 | 8.2 | 23.0 | 61 | |
| 자신의 혼전순결 | 혼전순결을 지켰다 | 59.1 | 10.1 | 30.9 | 337 | $X^2=21.84$ |
| |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다 | 52.2 | 10.8 | 36.9 | 157 | df=4 |
| | 말할 수 없다 | 34.8 | 21.7 | 43.5 | 23 | $P=0.0013$ |
| 배우자의 혼전순결 | 혼전순결을 지켰다 | 65.1 | 11.8 | 23.0 | 152 | $X^2=99.25$ |
| |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다 | 49.4 | 11.3 | 39.3 | 239 | df=4 |
| | 모르겠다 | 55.1 | 9.6 | 35.3 | 136 | $P=0.0000$ |

N=비해당 Missing Value는 제외한 수임

4).

나. 남편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히 남편의 불만족도가 크게 나타났고, 연령이 만 31~45세인 경우엔 부인측에서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형제서열은 외아들인 경우 남편이 부인보다 불만족도가 높은 비율이 가장 많았고 부모님 가운데 아버지만 생존해 있는 경우는 남편이 부인보다 불만족도 높았고 부부간의 일치도도 가장 낮았다.

남편의 성교육 경험이 없었을 때 부부간의 일치도가 높은 반면 경험이 있었을 때는 부인이 남편보다 불만족도가 높았다. 자위행위 경험이 있었을 때 남편이 부인보다 불만족도가 높았다.

자신의 혼전순결을 지켰을 때 부부간의 일치도가 높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남편의 불만족도가 높

았으며 말할 수 없다는 경우 부부간 일치도가 가장 낮았고 부인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5).

2.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

가. 부인의 경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부부간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형제서열에서는 외딸일 경우 부부간의 일치도가 높았다. 사춘기 성교육을 받았을 수록 남편이나 부인 어느 한 편이 성생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혼전관계가 없는 경우 부부간의 일치된 태도를 보이며 부인이 남편에 대해 배우자가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 경우 일치도가 가장 낮았다(표 6).

나. 남편의 경우

남편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부인이 보다 적극적

표 5. 독립변수별 결혼생활 만족도(남편)

| 독립 변수 | 태도 (%) | 부부간에 동일한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 | 부인이 남편보다 불만족도가 높은 집단 | 남편이 부인보다 불만족도가 높은 집단 | N | P |
|----------|---------------|----------------------|----------------------|----------------------|-----|--------------|
| 연령 | 만 22세이하 | | 100.0 | | 1 | |
| | 만 23~30세이하 | 63.8 | 7.6 | 23.6 | 131 | $X^2=75.16$ |
| | 만 31~45세이하 | 54.8 | 12.1 | 33.1 | 305 | $df=8$ |
| | 만 46~60세이하 | 49.1 | 10.2 | 40.7 | 108 | $P=0.0000$ |
| | 만 60세이상 | 36.4 | 9.1 | 54.4 | 11 | |
| 형제서열 | 외아들이다 | 54.2 | 6.9 | 38.9 | 72 | $X^2=99.37$ |
| | 막아들이다 | 61.5 | 11.1 | 27.4 | 208 | $df=4$ |
| | 둘다 아니다 | 51.0 | 11.8 | 37.1 | 245 | $P=0.0000$ |
| 부모님 생존 | 모두 생존 | 62.9 | 9.5 | 27.6 | 232 | $X^2=26.42$ |
| | 어머니만 생존 | 51.8 | 13.3 | 34.9 | 166 | $df=4$ |
| | 아버지만 생존 | 35.5 | 9.7 | 54.8 | 31 | $P=0.0093$ |
| | 모두사망 | 50.5 | 11.6 | 37.9 | 95 | |
| 성교육 경험 | 성교육을 받았다 | 51.2 | 16.3 | 32.6 | 129 | $X^2=137.21$ |
| | 성교육을 받지 않았다 | 56.8 | 9.3 | 33.8 | 396 | $df=4$ |
| | 말할 수 없다 | | | 100.0 | 1 | $P=0.0000$ |
| 자위행위 경험 | 자위행위를 했다 | 54.5 | 11.0 | 34.4 | 453 | $X^2=173.03$ |
| |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 | 61.2 | 11.9 | 26.9 | 67 | $df=4$ |
| | 말할 수 없다 | 50.0 | | 50.0 | 6 | $P=0.0000$ |
| 자신의 혼전순결 | 혼전순결을 지켰다 | 64.1 | 7.4 | 28.3 | 167 | $X^2=13.21$ |
| |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다 | 50.6 | 12.5 | 36.9 | 39 | $P=0.0398$ |
| | 말할 수 없다 | 48.7 | 15.4 | 35.9 | 39 | $P=0.0398$ |

N=비해당 Missing Value는 제외한 수임

표 6. 독립변수별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부인)

| 독립변수 | 태도 (%) | 부부간에 동일 한 태도를 보 이는 집단 | 부인이 남편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 | 남편이 부인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 | N | P |
|--------------|---------------|-----------------------------|--------------------------------|--------------------------------|-----|-------------|
| 무 학 | | | | | | |
| 교육정도 | 국민학교 | 33.3 | 33.3 | 33.3 | 3 | $X^2=28.04$ |
| | 중학교 | 59.9 | 17.6 | 22.5 | 187 | $df=4$ |
| | 고등학교 | 61.1 | 12.2 | 26.7 | 262 | $P=0.0055$ |
| | 대학교 | 63.3 | 15.2 | 21.5 | 79 | |
| | 대학원이상 | 66.7 | 33.3 | | 3 | |
| 형제서열 | 외동딸이다 | 66.7 | 10.5 | 22.8 | 57 | $X^2=95.62$ |
| | 만딸이다 | 61.2 | 14.2 | 24.6 | 183 | $df=4$ |
| | 둘다 아니다 | 59.5 | 16.0 | 24.5 | 294 | $P=0.0000$ |
| 사춘기의 성교육 | 성교육을 받았다 | 57.9 | 16.2 | 25.9 | 197 | $X^2=60.23$ |
| | 성교육을 받지 않았다 | 62.1 | 14.2 | 23.6 | 330 | $df=4$ |
| | 말할 수 없다 | 83.3 | | 16.7 | 6 | $P=0.0000$ |
| 배우자의 혼전순결 | 혼전순결을 지켰다 | 63.6 | 17.2 | 19.2 | 151 | $X^2=88.81$ |
| |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다 | 58.3 | 13.3 | 28.3 | 240 | $df=4$ |
| | 모르겠다 | 62.2 | 15.6 | 22.2 | 135 | $P=0.0000$ |

N=비해당 Missing Value는 제외한 수임

이고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남편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남편이 만아들일때 부인이 적극적이고 남편이 외아들일때는 남편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성교육의 경험 유무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성에 대한 태도에서는 성은 자연스런 것이라 생각했을 때 남편이 보다 적극적이었고, 거꾸로 성은 불결한 것, 혹은 신성한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부부간에 동일한 태도를 나타내거나 부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났다. 사춘기 자위행위 경험이 있을수록 남편이 더 적극적이고 경험이 없을수록 부인이 더 적극적이었다(표 7).

3. 결혼전 성생활에 대한 기대

가. 부인의 경우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기대가 동일하게 나타났고 부인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기대가 부인보다 약했다. 부인이 외동딸일때 부부간의 기대가 동일하게 나타났고 남편의 기대가 컸다.

성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부인의 기대가 약했고 받았을 때는 동일한 기대를 나타냈다. 자위행위를

했을 때 남편이 부인보다 기대가 약했고 하지 않았을 때 부인이 남편보다 기대가 약했다.

배우자가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한 경우 남편의 기대가 부인보다 약했고 지켰다고 믿는 경우엔 부부간에 일치도가 높거나 또는 부인의 기대가 남편보다 약하게 나타났다(표 8).

나. 남편의 경우

교육정도가 높아질수록 남편의 기대가 낮았고 교육정도가 대학교일 때 부부간 일치도가 높았다.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 1차산업 종사자의 경우 일치도가 높았고, 판매직, 생산직, 서비스직의 경우 부부간 일치도가 낮았다. 남편이 만아들일때가 일치도가 높았고 외아들일때 부부간의 태도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부모선호도에서 어머니를 더 좋아했을 때 부부간 일치도가 크고 아버지를 더 좋아했을 때 남편의 기대가 낮았다.

사춘기 성교육 경험이 없을 때 남편의 기대가 낮게 나타났고 성에 대한 태도에서 성은 신성한 것이라 생각할때 남편의 기대가 낮았다. 사춘기 자위행위 경험이 있을 때 부인의 기대가 낮았고 없을 때 남편의 기대가 낮게 나타났다(표 9).

표 7. 독립변수별 성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남편)

| 독립변수 | 태도 (%) | 부부간에 동일 부인이 남편보다 남편이 부인보다 한 태도를 보 이는 집단 | 동일 부인이 남편보다 남편이 부인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 |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집단 | N | P |
|-----------|--------------|---|--------------------------------------|-----------------|-----|--------------|
| 무 학 | | | | | | |
| 교육정도 | 국민학교 | 33.3 | 11.1 | 55.6 | 9 | $X^2=245.8$ |
| | 중학교 | 61.5 | 15.4 | 23.1 | 13 | df=18 |
| | 고등학교 | 62.2 | 14.3 | 23.5 | 98 | P=0.0000 |
| | 대학교 | 61.3 | 14.7 | 24.0 | 333 | |
| | 대학원이상 | 60.0 | 16.3 | 23.8 | 80 | |
| 형제서열 | 의아들이다 | 58.3 | 13.9 | 27.8 | 72 | $X^2=105.60$ |
| | 말아들이다 | 61.0 | 17.4 | 21.6 | 213 | df=4 |
| | 둘다 아니다 | 61.5 | 13.0 | 25.5 | 247 | P=0.0000 |
| 사춘기의 성교육 | 성교육을 받았다 | 60.3 | 14.5 | 25.2 | 131 | $X^2=148.79$ |
| | 성교육을 받지 않았다 | 60.8 | 15.0 | 24.2 | 401 | df=4 |
| | 말할 수 없다 | 100.0 | | | 1 | P=0.0594 |
| 성에대한 태도 | 성을 불결한 것이다 | 68.1 | 19.1 | 12.8 | 47 | $X^2=54.28$ |
| |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 59.6 | 12.9 | 27.6 | 381 | df=9 |
| | 성은 신성한 것이다 | 66.7 | 18.1 | 13.3 | 83 | P=0.0000 |
| | 기 타 | 38.9 | 33.3 | 27.8 | 18 | |
| 사춘기의 자위행위 | 자위행위를 했다 | 60.8 | 13.9 | 25.3 | 459 | $X^2=187.52$ |
| |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 | 59.7 | 20.9 | 19.4 | 67 | df=4 |
| | 말할 수 없다 | 71.4 | 14.3 | 14.3 | 7 | P=0.0000 |

N=비해당 Missing Value는 제외한 수임

고 찰

본 연구에서 부부간 성적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결혼생활 이전에 형성된 태도가 그 이후에 형성된 태도에 비해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분석학적으로는 Freud의 정신성적발달 단계 중 전에디프스기(구강기, 항문기, 생식기, 요도기), 에디프스기, 잠복기, 사춘기와 청소년기 이전의 해결되지 못한 무의식적 내적 갈등이 중요 요인이라 보며, 어린시절의 경험과 태도, 자란 환경등이 결혼 적응과 관계있다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다.⁸⁾⁹⁾¹⁰⁾

본 연구에서 부부간 성생활 갈등의 잠재성에는 현재 그 사람의 지위나 배경보다 사춘기 이전의 경험과 태도가 주요 요인으로 나온 바 정신분석적 이론과 일치되고 있다.

Freud⁹⁾는 환자의 성문제를 추구해 가면 어린시

기의 해결되지 못했던 무의식적 갈등때문이라 보고한 바 있다.

연령별로는 31세에서 45세 이하가 가장 많았는데 결혼 후 수반되는 성문제, 경제문제, 성격, 습관, 어린아이 문제등으로 긴장을 초래하여 가장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 보다 신중히 응답해준 이유로도 볼 수 있겠다. 30, 40대의 연령적 특성은 인생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개입이 있고 정립하는 시기로 생산적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자기 통정의 기능을 잃음으로써 절망이 따르고 성적응 역시 잠재적으로 억압되거나 증상화하게 된다¹¹⁾.

Kinsey¹¹⁾는 여성의 성적활동이 가장 증가되고 참여될 수 있는 시기로 성적갈등이 초래될 위험한 연령층으로 설명하고 있다.

남편의 직업,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도 결혼 행복에 차이가 있다. 자기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결혼한 경우 갈등이 가장 많았다는 보고¹²⁾가 있고 변하기 쉬운

표 8. 독립변수별 결혼전 성생활에 대한 기대(부인)

| 독립변수 | 태도 (%) | 부부간에 기대가 동일한 집단 | 부인이 남편보다 기대가 약했던 집단 | 남편이 부인보다 기대가 약했던 집단 | N | P |
|--------------|---------------|-----------------|---------------------|---------------------|-----|--------------|
| 무 학 | | | | | 0 | |
| 교육정도 | 국민학교 | 38.9 | 38.9 | 22.2 | 18 | $X^2=106.82$ |
| | 중학교 | 48.0 | 28.0 | 24.0 | 25 | df=10 |
| | 고등학교 | 46.0 | 30.5 | 23.5 | 200 | P=0.0000 |
| | 대학교 | 43.5 | 28.0 | 28.5 | 239 | |
| | 대학원이상 | 41.9 | 22.6 | 35.5 | 31 | |
| 형제서열 | 외동딸이다 | 48.1 | 22.2 | 29.6 | 54 | $X^2=83.99$ |
| | 만딸이다 | 41.0 | 29.8 | 29.2 | 178 | df=4 |
| | 둘다 아니다 | 45.9 | 29.7 | 24.4 | 283 | P=0.0000 |
| 사춘기의 성교육 | 성교육을 받았다 | 48.4 | 22.1 | 29.5 | 190 | $X^2=60.81$ |
| | 성교육을 받지 않았다 | 42.0 | 32.9 | 25.1 | 319 | df=4 |
| | 말할 수 없다 | 60.0 | 40.0 | | 5 | P=0.0000 |
| 자위행위 | 자위행위를 했다 | 47.2 | 21.3 | 31.5 | 178 | $X^2=141.29$ |
| |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 | 43.0 | 33.0 | 23.9 | 330 | df=4 |
| | 말할 수 없다 | 60.0 | 40.0 | | 5 | P=0.0000 |
| 배우자의 혼전순결 | 혼전순결을 지켰다 | 47.7 | 32.9 | 19.5 | 149 | $X^2=77.62$ |
| |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다 | 43.0 | 26.1 | 30.9 | 230 | df=4 |
| | 모르겠다 | 45.0 | 29.5 | 25.6 | 129 | P=0.0000 |

N=비해당 Missing Value는 제외한 수임

직업집단(예, 노동자, 세일즈맨)은 이동이 적은 집단(예, 교수, 목사, 행정가, 경영자, 전문직, 교사등)보다 행복이 덜하다는 보고가 있는데⁹⁾ 본 연구에서도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 1차산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간 일치도가 높아 간접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교육정도가 높았던 것은 남편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대화정도가 높고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이정순¹³⁾, 유은희¹⁴⁾의 보고와 그 경향에서 일치됨을 보였다.

형제서열도 성격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혼대상자를 만나 적응하는데 중요 역할을 한다⁹⁾¹⁵⁾

부인이 만딸이고 남편이 외아들일때 부부간 갈등의 소지가 높았고 남편의 아버지만 생존해 있는 경우 남편의 불만족도가 높으며, 남편이 어머니를 더 좋아했을 때 부부간 결혼전 성에 대한 기대에서 일치도가 크게 나타난 것은 에디프스 복합이 후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Atwater¹⁶⁾는 그 자신의 형제, 자매와 비슷한 이성과 결혼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더욱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했고, Freud 학파의 심리학자들도 어렸을 때 이성에 대한 자연스런 이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정신결정론에 입각한 에디프스적 갈등의 잠재성을 통해 고찰해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부인이 성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남편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성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태도는 결혼생활에서의 부적응을 초래하고 특히 소녀시절에 받아들였던 사회화과정과 조건화가 그녀의 성적욕망과 충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학자들⁸⁾⁹⁾¹⁰⁾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경험이 6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성이란 자연스런 것이란 극히 건강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경험보다 일상생활내에서 지각하는 경험적 영향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조사에서 부부가 경험한 사춘기 자위행위 경

협이 남편 74.6%, 부인 30.8%인데 이는 1950년대에 조사한 Kinsey¹¹⁾의 미국조사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자들에 따라 그 수치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소녀의 25%, 소년은 거의 100%가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¹¹⁾¹⁶⁾¹⁷⁾. 정신분석적으로 볼 때 사춘기의 이런 경험은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결혼 후 부

표 9. 독립변수별 결혼전 성생활에 대한 기대(남편)

| 독립 변수 | 태도 (%) | 부부간에 기대가 동일한 집단 | 부인이 남편보다 기대가 약했던 집단 | 남편이 부인보다 기대가 약했던 집단 | N | P |
|-----------|--------------|-----------------|---------------------|---------------------|-----|--------------|
| 무 학 | | | | | 0 | |
| 교육정도 | 국민학교 | 12.5 | 50.0 | 37.5 | 8 | $X^2=211.73$ |
| | 중학교 | 40.0 | 30.0 | 30.0 | 10 | $df=10$ |
| | 고등학교 | 41.8 | 35.2 | 23.1 | 91 | $P=0.0000$ |
| | 대학교 | 46.0 | 27.1 | 26.8 | 328 | |
| | 대학원이상 | 45.5 | 27.3 | 27.3 | 77 | |
| 직업 | 전문직 | 65.9 | 17.1 | 17.1 | 41 | |
| | 경영관리직 | 42.0 | 39.0 | 28.0 | 50 | |
| | 사무직 | 43.9 | 27.2 | 28.9 | 239 | |
| | 판매직 | 38.5 | 38.5 | 23.1 | 65 | $X^2=235.98$ |
| | 생산직 | 41.7 | 33.3 | 25.0 | 12 | $df=20$ |
| | 서비스직 | 42.1 | 36.8 | 12.1 | 19 | $P=0.0000$ |
| | 1차산업종사자 | 58.3 | 25.0 | 16.7 | 12 | |
| | 학생 | 40.9 | 27.3 | 31.9 | 22 | |
| | 무직(가정주부) | 71.4 | 14.3 | 14.3 | 7 | $P=0.0000$ |
| | 기타 | 37.0 | 30.4 | 32.6 | 46 | |
| | 자유업 | | | | | |
| 형제서열 | 외아들이다 | 31.8 | 34.8 | 33.3 | 66 | $X^2=103.39$ |
| | 말아들이다 | 49.8 | 26.8 | 23.5 | 213 | $df=4$ |
| | 둘다 아니다 | 43.6 | 28.6 | 27.8 | 234 | $P=0.0000$ |
| 부모 선호도 | 어머니를 더 좋아했다 | 48.1 | 28.9 | 23.1 | 308 | $X^2=25.50$ |
| | 아버지를 더 좋아했다 | 36.3 | 23.8 | 40.0 | 80 | $df=6$ |
| | 둘다 똑같이 좋아했다 | 43.1 | 28.4 | 28.4 | 109 | $P=0.0025$ |
| | 둘다 똑같이 싫어했다 | 18.2 | 54.5 | 27.3 | 11 | |
| 사춘기의 성교육 | 성교육을 받았다 | 45.7 | 33.3 | 20.9 | 129 | $X^2=131.64$ |
| | 성교육을 받지 않았다 | 44.2 | 27.5 | 28.3 | 385 | $df=4$ |
| | 말할 수 없다 | | | | | $P=0.0000$ |
| 성에대한 태도 | 성은 불결한 것이다 | 45.5 | 29.5 | 25.0 | 44 | $X^2=42.32$ |
| | 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 38.8 | 30.0 | 31.3 | 385 | $df=9$ |
| | 성은 신성한 것이다 | 38.8 | 30.0 | 31.3 | 80 | $P=0.0000$ |
| | 기타 | 33.3 | 16.7 | 50.0 | 18 | |
| 사춘기의 자위행위 | 자위행위를 했다 | 44.2 | 29.6 | 26.2 | 443 | $X^2=132.65$ |
| |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 | 46.9 | 25.0 | 28.1 | 64 | $df=4$ |
| | 말할 수 없다 | 42.9 | 14.3 | 42.9 | 7 | $P=0.0000$ |

N=비해당 Missing Value는 제외한 수임

부간 성적갈등에 영향을 주는데 본 연구에서 부인의 자위행위 경험이 없을 때 부부간 일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정신분석적 해석과 일치한다고 보겠다.

결혼형태는 연애결혼이 부부간 동일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결혼에 있어 낭만적 사랑이 동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⁸⁾¹⁹⁾. 결혼전 교제기간이 길수록 부부간 동일한 만족도를 보였고 짧을수록 갈등의 소지가 많아 구혼기간과 데이트기간 동안 친숙해진 부부가 갑자기 결혼한 부부보다 결혼행복도가 높다는 보고²⁰⁾와 일치되었다.

혼전 성관계에 관한 응답은 현재의 배우자 사이에 있는 경험만을 한정했다. 그 이유는 부부조사에서 현재 배우자 이외의 대상과 가진 혼전 성관계의 정보가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상 제한점 때문에 국한시켰다. 약 50% 수준에서 결혼식을 올리기 이전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대단히 개방적인 행위다. 물론 결혼이 약속되었거나 희망을 전제로 한 성행위이긴 하지만 혼전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율의 응답이 있다는 것은 결혼과 성은 별개의 것이란 새로운 가치 체계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혼전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한 세대전에는 남자의 약 50% 이상, 여자의 경우 약 30% 정도가 혼전관계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70% 이상이 혼전관계가 있고 특히 여자들의 비율이 높아 졌다는 보고가 있다²¹⁾²²⁾²³⁾²⁴⁾²⁵⁾.

본 연구에서 50% 정도가 배우자와의 결혼계획하에서는 혼전관계를 허락한 것으로 보아 1960년대 구미와 그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신뢰도는 여성이 남성에게 의심의 정도가 높다. 이는 남성중심적 과거의 사회가치관의 잔존이라고 생각되며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성장과정에서 남성들로부터 경험한 불성실에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 이미 39.7%의 부인이 자신의 남편이 자신과 결혼한 이전에 정조를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점이 성생활의 갈등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런 배우자의 정조에 대한 의심은 그대로 표현되지 못하므로 대부분 다른 신체적, 정신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그 갈등이 지나칠 때 편집증성 증상을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부부간 잠재된 성적갈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결혼생활 만족도, 성생활에 대한 기대와 충

족도, 결혼전 성에 대한 기대의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결혼후의 요인보다는 결혼전 배경이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사춘기이전의 요인이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왔다.

결 론

1984년 6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서울시내 중산층 부부 653쌍을 대상으로 질문지 방법을 이용한 사회학적 조사방법을 통해 부부간 성생활의 잠재적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부간에 잠재된 성적갈등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은 연령, 형제서열, 부모님생존, 부모선호도, 사춘기 성교육경험, 사춘기 자위행위 경험, 결혼형태, 결혼전 교제기간, 배우자와의 혼전 성관계, 배우자의 혼전순결에 대한 믿음, 직업등으로 나왔고 이중 사춘기 이전의 경험과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왔다.

References

- 1) Hinsie LE, Campbell RJ : *Psychiatric dictionary. 4th ed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0 : PP151-152*
- 2) Freud S : *A case of hysteria three essays on sexuality and other Works(1901-1905) in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Standard ed Vol VII London Hogarth Press 1961 : pp225-242*
- 3) Freud S : *The future of an illusion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and other works(1972-1931) in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Standard ed Vol XXI London Hogarth Press 1961 ; pp225-242*
- 4) Freud S : *Jokes and their relation to the unconscious (1913-1914) in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Standard ed Vol VII London Hogarth Press 1961 ; pp9-89*
- 5) Freud S : *Five lectures on psycho-analysis leonardo and other works(1910) in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Standard ed Vol XI London Hogarth Press 1961 ; pp193-207*
- 6) Masters WH, Jonson VE : *Human sexual inade-*

- quacy. Boston Little Brown & Co 1981 : pp127-140
- 7) Merton RK :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 pp105-117
 - 8) Klemer EJ, Howard DH : *Postmarital consequences of premarital sex adjustment*. *Amer Social Review* 1958 : 23 : 556-562
 - 9) Shorter E : *Making the most of marriage*. New York Basic Books 1977 ; pp415-419
 - 10) James M : *Marriage is for loving*. Addison-Wesley Pub Co 1979 : pp134-155
 - 11) Kinsey AC :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53 ; pp349
 - 12) Jorgensen SK : *Social class heterogamy status striding and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Jour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7 : Nov : 634-661
 - 13) 이정순 :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의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81
 - 14) 유은희 : 한국도시 부인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1975
 - 15) Kolb LC, Brodie HK :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Philadelphia London WB Saunders Co 1982 ; pp77-78
 - 16) Atwer B : *Psychology of adjustment*.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83 ; pp159-188
 - 17) Haberle EJ : *The sex atlas*. New York Continuum, 1982 : pp178-192
 - 18) Bell RR : *Marriage and family interaction*. Homewood ILL the Dorsey Press 1975
 - 19) Glass SP, Wright TL : *The relationship of extramarital sex length of marriage and sex differ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romanticism*. *Jour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7 : Nov : 691-703
 - 20) Richard UJ : *The social context of marriage*. 3rd ed Philadelphia Lippincott 1974 : 215-216
 - 21) Reiss IL :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among negroes and whites*. *Amer Social Review* 1964 : 29 : 688-698
 - 22) Luckey EB, Nass GD : *A comparison of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in an international sample*. *Jour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69 : 31 : 374-376
 - 23) Pietropinto AM, Simenauer J : *Beyond the male myth*. New York Quardrangle 1977
 - 24) Mirande AM, Hammer EL : *Premarital sexual permissiveness*. *A Research Note Jour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4 : 36 : 357
 - 25) Lief HI : *Sexual functions in men and their disturbances*. *Amer H of Psychiatry* Vol 1, 2nd ed Ed Arieti S New York Basic Books 1974 : pp545-568